

「2013학년도 입학식」 식사

2013년 3월 4일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자녀들을 정성과 사랑으로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대학교의 새 식구로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업의 여정을 서울대학교에서 시작하면서 품게 될 높은 이상과 활기찬 기백은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서광입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대학생활은 지금까지 해 왔던 공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대학은 주어진 정답만을 학습하는 곳도, 단순히 지식만을 습득하는 곳도 아닙니다. 대학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고 이에 대한 해답을 열정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가치를 새롭게 창조하는 곳입니다. 남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길을 모색하고 개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 넓고 깊이 있는 사고로 학업에 임하는 태도가 절실합니다. 수준 높은 교양인이 되기 위한 자질을 부단히 연마해야 합니다. 다양한 학문 간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지적 호기심과 융합적 상상력을 평소에 배양해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휴머니즘을 익히고 가꾸는 일 또한 대학인의 당연한 소명입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를 고뇌하고 삶의 궁극적 가치를 성찰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대학생활은 청춘의 열정과 낭만, 그리고 패기와 도전정신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강건한 심신을 바탕으로 하여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 훗

날 뒤돌아보면 대학시절만한 인생의 황금기가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다 긴 안목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대학생으로서의 첫 일 년, 처음 몇 달, 혹은 초기 몇 주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활의 성공은 지금 이 순간의 각오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설렘과 떨림으로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설계하는 여러분 앞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자랑하는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정한 제자로 맞이하고 싶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을 친구나 동료로 만나고 싶어 하는 수많은 학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지난 60여 년 동안 겨레와 민족의 대학으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한국과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서울대학교는 사회공동체 전반에 대한 관심과 헌신, 지구촌 전체에 대한 배려와 봉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과 경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두루두루 살피고 보듬을 줄 아는 참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서 가지는 벅찬 자량과 무한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은 자신이 추구할 미래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결합될 때 더욱 가치 있는 자부심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대학에서 희망을 찾고 서울대학교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몇 년 간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의 모든 교수와 직원들은 합심하여 여러분들의 노력을 성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새내기들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